

국민학교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생물·정신사회학적 연구 (I)⁺

—Rutter의 아동행동평가표에 의한 국민학교아동의 정서행동문제조사—

BIO-PSYCHOSOCIAL STUDY OF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 IN KOREAN ELEMENTARY SCHOOL CHILDREN (I)⁺

—An Epidemiological Study of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 in
Korean Elementary School Children by Rutter's Questionnaire—

장경준* · 이정균** · 홍강의***

Kyung-June Jang, M.D.,* Chung-Kyoon Lee, M.D.,** Kang-E Hong, M.D.***

요 약 : Rutter의 부모용과 교사용 아동행동평가표를 사용해 서울과 농촌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정서행동문제의 빈도와 사회환경적 변인이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여러 사회환경적 변인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총점평균은, 지역별로는 농촌이 서울보다 높았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높았다. 학년별로는 4학년이나 5학년에서 감소 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부모교육 정도별로는 저학력군이 고학력군에 비해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총점평균이 높았다. 아버지 직업별로는 무직인 경우가 직업을 가진 경우에 비해 높았다. 부모중 어느 한쪽에 결혼이 있는 경우가 부모 생존한 경우에 비해 정서행동문제 총점평균이 높았다. 이로써 국민학생의 정서행동문제는 여러 사회환경적 변인에 영향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서 론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관한 역학조사는 소아정신과 영역의 학문적 발달과 정서행동문제 아동에 대한 이해와 치료 및 예방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기초연구라 할 수 있다(홍강의 등 1988).

Long(1941)이 부모면담을 통한 행동문제 아동에 대한 역학조사를 보고한 이후 상당수의 역학조사가 행하여졌으나 대부분은 몇몇 특정한 행동문

제와 제한된 지역 및 제한된 연령군에 관한 것들이었는데(홍강의 등 1988), 지금까지 일반아동에 있어서의 행동문제에 관한 조사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Miller(1967), Connors(1969), Rutter et al. (1970), Langer et al.(1976), Quay(1979), Achenbach & Edelbrock(1981) 등에 의해 시행된 설문을 통한 조사를 들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80년대 중반에 와서야 일반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홍강의와 홍경

⁺본 연구의 일부는 1989년도 서울대학교병원 임상 연구비로서 이루어졌음.

*국립서울정신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Department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Seoul National Mental Hosp.*

** 서울의대 정신과 *Department of Psychiatry, Seoul National Univ.*

*** 서울의대 소아정신과 *Division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Seoul National Univ.*

자(1983, 1985, 1986)가 Miller(1967), Connors(1970) 및 Achenbach(1979)의 부모설문을 참조하고 저자들의 임상적 경험을 통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한 정서행동문제중 부모용설문 60문항을 선정하여 서울과 인근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보고와, 1988년 홍강의 등에 의해 아동행동목록(Achenbach et al. 1978, 1983) 119 항목에다 저자들이 3항목을 첨가한 122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부모용설문을 사용해 서울시내 3개 국민학교와 2개의 지방 국민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사보고가 있을 뿐이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행동을 연구할 때 부모는 아동에 대해 전반적인 것에서 사소한 것까지 가장 잘 알고 있어서 가장 타당한 정보제공자이고(Rutter et al. 1970; 홍강의 등 1988) 또한 임상평가와 부모의 보고가 가장 높은 일치율을 보인다고 해서(Achenbach & Edelbrock 1980) 부모설문에 의한 조사가 많은데, 반면에 Mitchell & Shepherd(1966), Rutter & Graham(1966)과 Glidewell & Swallow(1968)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가정에서와 학교에서 아동들의 행동양상은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고, 따라서 정서행동문제아동의 빈도가 실제보다 낮게 보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Gould et al. 1981) 교사면담이나 교사용설문을 사용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자는 위와 같은 연구보고들을 살펴볼 때 한국에서 부모와 교사를 통한 국민학교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조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Rutter(1967, 1970)의 부모용과 교사용 아동행동 평가표를 사용하여 도시(서울)와 농촌지역에서 국민학교아동을 대상으로 지역, 성별, 학년, 출생순위, 형제수, 부모교육, 아버지 직업, 부모결혼 등 사회환경적 변인이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한다. Rutter(1967, 1970)의 아동행동 평가표는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연구에 흔히 사용되고 있는 Miller(1967), Langer et al.(1976), Achenbach(1978) 그리고 Quay(1979)의 설문과 달리 부모용과 교사용이 분리되어 있으며, 정서행동문제아동과 정상아동을 구별하기 위한 한계점수(cut-off point)가 있고, 또한 문항별 점수에 따라 정서행동 문제아동을 신경증적, 반사회적, 혼합형 장애로 진단별 분류가 가능한 장점이 있어서 서구권은 물론 동양

권에서도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연구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그 타당도와 신뢰도가 인정받고 있다(Boyle & Jones 1985; Wong 1988).

연구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은 서울과 농촌지역에서 사회경제 계층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2개 국민학교 아동으로서 서울시 성동구 소재 1개 국민학교와 경상북도 농어촌지역 면 소재지 1개 국민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였다(Table 1).

조사 도구로는 Rutter et al.(1967, 1970)이 개발한 부모용 아동행동 평가표(A Children's Behaviour Questionnaire for Completion by Parents)와 교사용 아동행동 평가표(A Children's Behaviour Questionnaire for Completion by Teachers)를 두명의 정신과 전문의가 번안해 사용하였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Rutter의 아동행동 평가표는 다른 정서행동문제 조사 도구와는 달리 정상아동과 정서행동문제아동을 구분하는 한계점수가 있으며, 부모용과 교사용의 설문이 분리되어 있고, 비록 신경증, 반사회적, 혼합형 장애의 세가지 진단에 국한되지만 문항별 점수에 따라 진단별 분류가 가능해 국민학교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조사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Boyle & Jones 1985), 동양권에서도 1988년 Wong에 의해 그 신뢰도와 타당성이 입증된 바 있다.

Rutter의 부모용과 교사용 아동행동 평가표는 각 31항목과 26항목으로 되어 있고 문항항목마다 "해당 없음", "어느정도 해당", "확실히 해당"의 세가지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들 각각에 0점, 1점, 2점의 점수를 주어 정서행동문제의 총점이 부모용 설문은 0에서 62점의 범위에, 교사용 설문은 0에서 52점의 범위에 속하게 되어 있다. 부모용 설문에서 신경증 장애 항목은 3, 7, 13, 19 및 28번 항목이고 반사회적 장애 항목은 11, 16, 26, 30 및 31번 항목인데 31항목 총점이 13점 이상이면 정서행동문제가 있는 것을 의미하고, 13점 이상인 아동중 신경증 장애 항목 점수의 합이 반사회적 장애 항목 점수의 합보다 많을 때는 신경증 장애(neurotic disorder)로, 그 반대일 때는 반사회적 장애(antisocial disorder)로, 점수의 합이

Table 1. Distribution of subjects by locality, questionnaire, sex and grade (%)

Locality	Questionnaire	Sex	Grade						Total	
			1st	2nd	3rd	4th	5th	6th		
Seoul	Parent	Boys	135(19.3)	129(18.4)	103(14.7)	144(20.5)	111(15.8)	79(11.3)	701(100.0)	
		Girls	106(16.0)	124(18.8)	125(18.9)	111(16.8)	119(18.0)	76(11.5)	661(100.0)	
	Teacher	Both sexes	241(17.7)	253(18.6)	228(16.7)	255(18.7)	230(16.9)	155(11.4)	1362(100.0)	
		Boys	148(19.1)	152(19.7)	105(13.6)	157(20.3)	125(16.2)	86(11.1)	773(100.0)	
	Rural	Parent	Girls	121(17.1)	141(19.9)	114(16.1)	122(17.2)	133(18.8)	78(11.0)	709(100.0)
			Both sexes	269(18.2)	293(19.8)	219(14.8)	279(18.8)	258(17.4)	164(11.1)	1482(100.0)
Rural	Parent	Boys	38(17.4)	29(13.2)	30(13.7)	39(17.8)	41(18.7)	42(19.2)	219(100.0)	
		Girls	37(17.7)	30(14.4)	42(20.1)	29(13.9)	33(15.8)	38(18.2)	209(100.0)	
	Teacher	Both sexes	75(17.5)	59(13.8)	72(16.8)	68(15.9)	74(17.3)	80(18.7)	428(100.0)	
		Boys	37(16.0)	27(11.7)	37(16.0)	45(19.5)	43(18.6)	42(18.2)	231(100.0)	
	Rural	Teacher	Girls	40(17.5)	35(15.3)	47(20.5)	37(16.2)	32(14.0)	38(16.6)	229(100.0)
			Both sexes	77(16.7)	62(13.5)	84(18.3)	82(17.8)	75(16.3)	80(17.4)	460(100.0)

같은 때는 혼합형 장애(mixed disorder)로 분류된다. 교사용 설문에서 신경증 장애 항목은 7, 10, 17 및 23번 항목이고 반사회적 장애 항목은 4, 5, 15, 19, 20 및 26번 항목인데 26항목 총점이 9점 이상이면 정서행동 문제가 있는 것을 의미하고, 9점 이상인 아동중 신경증, 반사회적, 혼합형 장애에 대한 분류기준은 부모용과 동일하다.

교사용과 부모용 설문지를 선정된 학교의 학급 담임교사와 부모에게 배포하여 부모용 설문지는 1주 이내에, 교사용 설문지는 2주 이내에 회수하였다.

본 조사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및 문항 분석 조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사를 시행하였다.

교사용 설문에서 검사-재검사 신뢰도 측정을 위해 서울시내 1개 국민학교 2학년 담임교사 4명을 대상으로 담당 학급아동에 대해 두달 간격으로 재조사 하였는데 처음 심사시 두달 후 재검사를 시행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각 아동의 전체점수로 두번 모두 응답한 48예에 대해 Pearson 적률상관계수(product-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를 측정할 결과 0.90을 보였고, 각 문항 점수로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측정할 결과 0.61을 보였다.

부모용 설문에서 검사-재검사 신뢰도 측정을 위해 서울시내 1개 국민학교 각학년 1반에서 번호 1번에서 10번까지 아동을 선정하여 두달 간격으로 재조사 하였으며 처음 검사시 두달 후 재검사를 시행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각 아동의 전체점수로 어머니가 두번 모두 응답한 48예에 대해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측정할 결과 0.98을 보였고, 각 문항점수로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측정할 결과 0.74를 보였다.

부모간의 일치도를 보기 위해 서울시내 1개 국민학교 각 학년 1반에서 번호 1번에서 10번까지 아동을 선정하여 가능한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시에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각 아동의 전체점수로 양쪽 모두 응답한 50예에 대해 Pearson 상관계수를 측정할 결과 0.87을 보였고, 각 문항점수로 Pearson 상관계수를 측정할 결과 0.66을 보였다.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보기 위해

서울과 농촌에서 부모용 설문에 응답한 1790명과 교사용 설문에 응답한 1942예를 대상으로 Cronbach alpha계수를 측정한 결과 부모용과 교사용에서 똑같이 0.88을 보였다.

조사도구의 변별력(discriminative power)을 알아보기 위해 1987년 12월 1일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 소아정신과를 1년이상 수련받은 정신과 전문의에 의해 서울대학교 병원과 국립서울정신병원에서 정서행동장애아로 진단받은 28명의 소아정신과 입원 및 외래 환아에 대해 Rutter의 부모용과 교사용 아동행동 평가표에 의한 변별력을 알아 보았는데, 본 연구대상인 서울과 농촌 국민학교에서 부모용 설문에 응답한 1730예중 13점 이상을 보인 경우가 남자는 19.5%, 여자는 18.7%인데 비해 환자군에서는 각 80.0%와 76.9%를 나타냈고, 교사용 설문에 응답한 1942예중 9점 이상을 보인 경우가 남자는 18.1%, 여자는 9.9%를 보였는데 환자군에서는 각 85.7%와 69.2%를 보였다.

또한 부모용과 교사용 설문중 23개의 공통문항에 대해 부모와 교사간의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과 농촌 국민학교에서 부모용 설문에 응답한 1790명과 교사용 설문에 응답한 1942예를 대상으로 각 아동의 전체점수로 Pearson 상관계수를 계산해 보니 0.27을 보였다. 각 문항별로는 0.10 내지 0.27까지의 낮은 수치를 보였지만 23개 전문항에서 $p < 0.001$ 수준에서 유의미 하였다.

변별지수(discrimination index)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과 농촌에서 부모용 설문에 응답한 1790명과 교사용 설문에 응답한 1942예를 대상으로 하여 각 문항별로 Hopkins와 Antes의 변별지수를 측정한 결과, 부모용 설문에서는 0.66 내지 1.00의

범위를 보였으며 교사용 설문에서는 0.86 내지 1.00의 범위를 보였다. 또한 각 문항별로 Pearson의 양분상관계수(biserial correlation)를 측정한 결과 부모용 설문에서는 0.28 내지 0.54의 범위를 보였으며, 교사용 설문에서는 0.22 내지 0.59의 범위를 보였다. 양분상관계수는 부모용과 교사용 설문 전체문항에서 $p < 0.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사회환경적 변인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조사의 비교에는 F-test와 chi-square test를 하여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1) 지역별 비교

정서행동문제의 총점평균은 부모용 설문에서 남자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농촌아동이 높았으며 부모용 설문의 남자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총점평균은 농촌아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부모용과 교사용 설문에서 한계점수(cut-off point)인 각 13점과 9점을 기준으로 정서행동문제 아동의 빈도차이를 조사하였더니 부모용 설문의 남자와 여자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p < 0.05$, by chi-square test) 농촌아동이 높았으며, 부모용 설문의 남자와 여자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정서행동문제 아동의 빈도는 농촌아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성별 비교

정서행동문제의 총점평균은 농촌의 부모용 설문 경우만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남자가

Table 2. Mean value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questionnaire scores according to locality

Questionnaire	Sex	Locality		p value (F-test)
		Seoul	Rural	
Parent	Boys	7.4±7.3	8.4±6.7	N.S.
	Girls	6.5±6.5	8.1±6.1	<0.01
	Both sexes	7.0±6.9	8.3±6.4	<0.001
Teacher	Boys	3.8±4.9	6.9±5.6	<0.001
	Girls	2.2±3.5	5.4±5.6	<0.001
	Both sexes	3.0±4.4	6.2±5.6	<0.001

높았으며, 농촌의 부모용 설문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총점평균은 남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정서행동문제아동의 빈도차이를 조사하였더니 교사용 설문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p < 0.05$, by chi-square test) 남자가 높았으며, 부모용 설문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빈도는 역시 남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학년별 비교

정서행동문제의 총점평균은 교사용 설문에서는 서울과 농촌 모두에서 $p < 0.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부모용 설문에서는 농촌의 남자와 여자를 합친 전체아동(이하 전체아동이라 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서울의 교사용 설문에서 정서행동문제 총점평균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증가하다가 4학년에서 감소 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농촌의 교사용 설문과 부모용 설문의 전체아동 경우에는 4학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후 5학년에서 감소 후 6학년에서 다시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Table 4).

정서행동문제 아동의 빈도차이를 조사하였더니 교사용 설문에서는 서울과 농촌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001$, by chi-square test)를 보였지만, 부모용 설문에서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교사용 설문에서 정서행동문제 아동의 학년별 빈도차이는 정서행동문제 총점평균의 변화와 같은 양상을 보였다.

4) 출생순위별 비교

정서행동문제의 총점평균은 서울의 교사용 설문에서 남자와 전체 아동에서 각 $p < 0.01$ 과 $p < 0.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 경우 정서

행동문제 총점평균은 첫째에 비해 둘째에서 감소 후 그후 출생순위가 늦어짐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외동의 경우에는 출생순위가 첫째부터 넷째까지인 아동에 비해 높은 정서행동문제 점수를 보였다(Table 5).

정서행동문제 아동의 빈도차이를 조사하였더니 서울의 교사용 설문에서 남자와 전체 아동에서 유의한 차이($p < 0.05$, by chi-square test)를 보였으며 출생순위별 차이는 정서행동문제 총점평균 차이와 같은 양상을 보였다.

5) 형제수에 따른 비교

정서행동문제의 총점평균은 서울의 부모용과 교사용 설문에서 전체 아동과 농촌의 교사용 설문에서 높은 정서행동문제 점수를 보였다(Table 6).

정서행동문제 아동의 빈도차이를 조사하였더니 서울의 교사용 설문에서 남자와 전체아동에서 유의한 차이($p < 0.05$, by chi-square test)를 보였는데, 외동의 경우에서 정서행동문제아동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6) 아버지 교육정도에 따른 차이

정서행동문제의 총점평균은 서울의 부모용 설문에서 여자와 전체아동, 그리고 교사용 설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국졸 이하의 저학력군에서 높았고, 대중퇴 내지 대졸 이상의 고학력군에서 낮았다(Table 7).

정서행동문제아동의 빈도차이를 조사하였더니 서울의 부모용 설문에서 여자와 전체아동과 교사용 설문에서 남자와 전체아동의 경우, 그리고 농촌의 부모용 설문에서 남자의 경우 유의한 차이($p < 0.05$, by chi-square test)를 보였는데 저학력군에서 정서행동문제아동의 빈도가 높았고, 고학력군에서 낮았다.

Table 3. Mean value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questionnaire scores according to locality

Locality	Questionnaire	Sex		p value (F-test)
		Boys	Girls	
Seoul	Parent	7.4 ± 7.3	6.5 ± 6.5	<0.05
	Teacher	3.8 ± 4.9	2.2 ± 3.5	<0.001
Rural	Parent	8.4 ± 6.7	8.1 ± 6.1	N.S.
	Teacher	6.9 ± 5.6	5.4 ± 5.6	<0.01

questionnaire scores according to grade

3rd	4th	5th	6th	p value (F-test)
0±6.3	7.7±7.7	7.6±5.1	8.2±9.1	N.S.
7±7.4	6.6±6.4	6.3±5.9	6.1±6.2	N.S.
3±6.9	7.2±7.1	6.9±5.5	7.1±7.9	N.S.
6±7.2	2.2±3.2	2.5±3.5	3.2±3.7	<0.001
3±5.0	1.3±2.7	1.5±2.9	1.9±3.4	<0.001
4±6.3	1.8±3.1	1.9±3.2	2.5±3.6	<0.001
9±6.5	10.5±8.5	7.4±5.9	9.0±7.0	N.S.
5±5.8	9.2±5.9	8.1±5.8	9.5±6.6	N.S.
2±6.0	10.0±7.4	7.7±5.8	9.2±6.8	<0.05
3±4.0	10.5±6.2	4.3±3.9	9.7±5.5	<0.001
5±6.4	9.1±6.6	2.6±3.0	9.2±5.5	<0.001
4±5.4	9.9±6.4	3.5±3.6	9.5±5.5	<0.001

questionnaire scores according to birth order

Birth order				
2nd	3rd	4th	5th or more	p value (F-test)
4±7.8	7.2±7.6	5.9±4.9	6.3±97.8	N.S.
4±6.6	6.4±7.5	5.6±6.7	6.8±7.7	N.S.
9±7.2	6.8±7.6	5.8±5.8	6.6±7.6	N.S.
0±4.1	3.6±4.8	3.9±5.0	6.4±7.0	<0.001
0±3.1	2.0±3.7	2.1±2.7	3.0±3.8	N.S.
5±3.7	2.8±4.3	3.1±4.3	3.9±5.0	<0.001
9±5.0	8.5±6.1	12.2±10.2	7.7±6.4	N.S.
0±6.3	8.8±6.2	9.8±5.7	10.5±7.8	N.S.
4±5.7	8.8±6.1	10.9±8.1	8.9±7.1	N.S.
9±5.9	6.6±5.2	9.9±6.5	6.7±4.2	N.S.
7±4.1	6.7±7.4	6.3±6.2	5.0±5.3	N.S.
8±5.2	6.7±6.2	7.8±6.5	6.0±4.7	N.S.

Table 6. Mean value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questionnaire scores according to number of siblings

Locality	Questionnaire	Sex	Number of siblings					p value (F-test)
			1	2	3	4	5 or more	
Seoul	Parent	Boys	8.8±9.7	7.3±6.7	8.1±8.6	5.7±4.8	6.0±6.1	N.S.
		Girls	8.4±7.6	6.7±5.9	6.4±6.8	5.7±7.6	6.4±7.1	N.S.
		Both sexes	8.6±8.8	7.0±6.3	7.2±7.7	5.6±6.5	6.2±6.6	<0.05
	Teacher	Boys	5.4±5.5	3.8±4.9	3.4±4.6	3.4±4.6	3.5±4.6	N.S.
		Girls	3.5±5.1	2.1±3.4	2.1±3.4	1.6±2.9	2.5±3.1	N.S.
		Both sexes	4.5±5.4	3.1±4.4	2.6±4.0	2.4±3.8	2.9±3.7	<0.001
Rural	Parent	Boys	7.8±7.7	7.8±6.0	9.0±6.2	8.4±8.8	9.0±7.6	N.S.
		Girls	8.2±8.8	6.9±4.7	7.3±5.6	9.2±6.1	9.2±7.2	N.S.
		Both sexes	8.0±8.0	7.4±5.5	8.3±6.0	9.0±6.7	9.1±7.3	N.S.
	Teacher	Boys	6.3±6.0	5.6±5.8	7.6±5.6	10.2±6.9	6.8±4.4	<0.05
		Girls	8.2±6.9	4.1±4.3	5.1±5.5	6.9±6.9	5.4±4.9	<0.05
		Both sexes	7.3±6.4	5.0±5.3	6.5±5.6	7.7±7.6	6.1±4.7	<0.05

Table 7. Mean value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questionnaire scores according to father's education

Locality	Questionnaire	Sex	father's education				p value (F-test)
			Elementary or less	Middle or less	High or less	College or less	
Seoul	Parent	Boys	9.8±7.3	6.8±5.4	8.0±7.9	6.8±7.1	N.S.
		Girls	9.3±7.6	6.8±6.2	7.6±7.3	5.0±5.3	<0.001
		Both sexes	9.6±7.3	6.8±5.7	7.8±7.6	5.9±6.3	<0.001
	Teacher	Boys	6.0±7.0	4.7±5.6	4.0±5.0	3.3±4.4	<0.001
		Girls	3.6±4.1	2.7±3.7	2.5±3.6	1.5±3.0	<0.05
		Both sexes	5.1±6.1	3.8±4.9	3.2±4.4	2.4±3.9	<0.01
Rural	Parent	Boys	7.2±6.0	9.3±6.4	7.7±6.8	8.7±5.7	N.S.
		Girls	9.3±6.4	8.1±6.3	6.7±5.3	7.1±4.3	N.S.
		Both sexes	8.3±6.3	8.6±6.3	7.2±6.1	8.1±5.3	N.S.
	Teacher	Boys	6.6±4.7	7.3±5.5	7.2±6.6	5.7±4.5	N.S.
		Girls	5.8±5.6	5.4±4.9	4.7±5.6	4.5±5.1	N.S.
		Both sexes	6.2±5.1	6.3±5.2	5.9±6.2	5.2±4.7	N.S.

7) 어머니 교육정도에 따른 차이

정서행동문제의 총점평균은 서울의 부모용과 교사용 설문에서 여자와 전체아동, 농촌의 부모용 설문에서 여자와 전체아동 그리고 교사용 설문에서 남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국졸 이하의 저학력군에서 높았고, 대중퇴 내지 대졸 이상의 고학력군에서 낮았다(Table 8).

정서행동문제아동의 빈도차이를 조사하였더니 서울의 부모용 설문에서 남자와 전체아동, 농촌의

부모용 설문에서 여자 그리고 교사용 설문의 남자에서 유의한 차이(p<0.05, by chi-square test)를 보였는데, 저학력군에서 정서행동문제아동의 빈도가 높았고, 고학력군에서 낮았다.

8) 아버지 직업에 따른 차이

정서행동문제의 총점평균은 서울의 부모용 설문과 교사용 설문의 전체아동, 농촌 부모용 설문의 여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서울

Table 8. Mean value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questionnaire scores according to mother's education

Locality	Questionnaire	Sex	Mother's education				p value (F-test)
			Elementary or less	Middle or less	High or less	College or less	
Seoul	Parent	Boys	8.2±5.9	7.5±5.9	7.4±8.2	6.3±6.3	N.S.
		Girls	8.7±7.0	7.4±6.4	6.5±6.8	4.9±5.5	<0.01
		Both sexes	8.5±6.3	7.4±6.1	7.0±7.5	5.5±5.9	<0.05
	Teacher	Boys	5.4±6.4	3.7±4.8	3.8±4.8	3.2±4.6	N.S.
		Girls	2.7±3.4	2.8±4.3	2.0±3.1	1.6±3.2	<0.01
		Both sexes	4.0±5.3	3.3±4.6	3.0±4.2	2.4±4.0	<0.05
Rural	Parent	Boys	7.4±5.3	8.2±6.2	10.1±8.2	7.0±6.0	N.S.
		Girls	8.9±6.6	6.8±5.4	9.2±5.9	4.8±4.4	<0.05
		Both sexes	8.2±6.0	7.4±5.8	9.8±7.3	6.1±5.3	<0.05
	Teacher	Boys	7.0±5.2	6.2±5.6	8.7±6.4	2.5±1.9	<0.05
		Girls	6.3±5.9	5.3±5.9	4.5±3.9	3.2±5.5	N.S.
		Both sexes	6.7±5.5	5.7±5.8	6.8±5.7	2.8±3.8	N.S.

의 경우 무직과 노동의 경우 점수가 높았으며 사무직이나 전문직의 경우 점수가 낮았는데, 농촌 부모용 설문은 여자 경우 무직에서는 점수가 높았으나 사무직이나 전문직이 노동에 비해 오히려 점수가 높은 양상을 보였다(Table 9).

정서행동문제아동의 빈도차이를 조사하였더니 서울의 부모용 설문, 농촌 부모용 설문의 여자에서 유의한 차이($p < 0.05$, by chi-square test)를 보였는데, 빈도차이 역시 정서행동문제 총점평균의 차이와 같은 양상을 보였다.

9) 부모결혼에 따른 차이

정서행동문제의 총점평균은 서울의 부모용 설문에서 여자와 전체아동, 농촌의 부모용 설문에서 남자와 전체아동 그리고 교사용 설문에서 여자와 전체아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농촌의 부모용 설문 전체아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생존한 경우가 아버지나 어머니만 있는 경우에 비해 정서행동문제 총점평균이 낮았다(Table 10).

정서행동문제아동의 빈도차이를 조사하였더니 서울의 부모용 설문에서 여자와 전체아동 그리고 교사용 설문에서 남자, 농촌 부모용 설문의 여자와 전체아동에서 유의한 차이($p < 0.05$, by chi-square test)를 보였는데 빈도차이 역시 정서행동문제 총점평균 차이와 같은 양상을 보였다.

고 찰

정서행동문제 조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및 문항분석에 대한 조사; 본 조사에서 각 아동의 전체점수에 의한 부모용 설문은 검사-재검사 신뢰도 상관계수는 0.98, 부모간 일치도 상관계수는 0.87, 교사용 설문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상관계수는 0.97을 보였는데, Rutter(1967, 1970)는 각 0.74와 0.63 그리고 0.90으로 보고한 바 있다.

본 조사에서 Cronbach alpha 계수는 부모용과 교사용에서 똑같이 0.88을 보였다.

본 조사에서 전문의에 의해 확진받은 정서행동장애아동중 부모용 설문에서 남자의 경우 80.0%, 여자의 경우 76.9%에서 13점 이상을 보였고, 교사용 설문에서는 각 85.7%와 69.2%에서 9점 이상을 보였는데, Rutter(1967, 1970)는 부모용 설문에서 남자의 경우 73.6%, 여자의 경우 66.6%로, 그리고 교사용 설문에서는 각 77.9%와 67.5%로 보고한 바 있다.

본 조사에서 부모와 교사간의 일치도에서 비록 통계적으로 의미는 있었지만 상관계수가 낮은 편이었는데($r = 0.27$), 문항별로 분석을 해보니 걱정이 많고 때로 여러가지 일에 고민한다(부모용 설문 19번, 교사용 설문 7번 문항)와 새로운 사물이나 환경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한다(부모용 설문 28번, 교사용 설문 17번 문항)와 같은 신경증 항목

Table 9. Mean value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questionnaire scores according to father's occupation

Locality	Questionnaire	Sex	Father's occupation							p value (F-test)
			Office worker	Specia- list	Labourer	Owner of private business	Unempl-oyed	Absent	Other	
Seoul	Parent	Boys	6.6±6.7	6.0±5.9	8.3±5.5	8.2±8.7	7.7±2.5	10.0±0.0	9.7±7.7	<0.05
		Girls	6.2±5.9	5.7±5.4	7.9±6.1	5.9±7.0	13.7±5.1	7.2±9.9	9.8±8.3	<0.05
		Both sexes	6.4±6.3	5.9±5.6	8.1±5.8	7.1±8.0	10.7±4.9	7.6±9.2	9.8±7.9	<0.001
	Teacher	Boys	3.4±4.0	3.6±5.3	4.2±5.6	4.1±5.2	5.0±4.2	3.0±0.0	4.6±5.1	N.S.
		Girls	2.3±3.7	2.2±3.9	2.6±3.1	2.0±3.3	4.8±4.9	1.8±3.6	1.5±2.5	N.S.
		Both sexes	2.9±3.9	3.0±4.7	3.4±4.6	3.0±4.5	4.9±4.4	2.0±3.3	3.1±4.3	<0.01
Rural	Parent	Boys	9.3±7.3	6.6±4.6	7.3±5.6	9.2±6.9	8.8±3.6	11.0±0.0	8.0±7.0	N.S.
		Girls	7.6±4.6	10.7±7.7	7.1±5.8	6.5±5.7	11.5±0.7	11.0±0.0	9.4±6.5	<0.05
		Both sexes	8.6±6.2	8.3±6.4	7.2±5.7	7.7±6.4	9.6±3.2	11.0±0.0	8.8±6.7	N.S.
	Teacher	Boys	6.6±5.0	6.7±5.5	7.3±5.5	6.8±6.4	6.3±5.5	2.0±2.8	6.4±5.3	N.S.
		Girls	4.4±4.0	6.5±6.6	5.5±5.5	4.5±4.5	6.7±4.6	2.0±2.8	5.6±6.3	N.S.
		Both sexes	5.5±4.6	6.6±5.9	6.3±5.5	5.5±5.5	6.4±4.9	2.0±2.8	6.0±5.8	N.S.

에서 부모와 교사간 상관계수가 낮았고, 말을 더 듣는다(부모용 설문 9번, 교사용 설문 24번 문항), 언어장애가 있다(부모용 설문 10번, 교사용 설문 25번 문항), 엄지나 손가락을 자주 뺏다(부모용 설문 24번, 교사용 설문 12번 문항), 손톱이나 손가락을 자주 물어 뜯는다(부모용 설문 25번, 교사용 설문 13번 문항)와 같은 습관(habit)을 나타내는 항목이나, 거짓말을 잘한다(부모용 설문 30번, 교사용 설문 19번 문항), 다른 아이를 못살게 군다(부모용 설문 31번, 교사용 설문 26번 문항)와 같은 반사회적 특징을 나타내는 항목에서는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utter(1970)도 본 조사와 같은 문항별 분석결과를 보고하면서 부모와 교사간 일치도의 상관계수를 0.18로 보고한 바 있다.

변별지수는 부모용과 교사용 설문의 각 문항에 따라 0.66 내지 1.00의 범위에 속해 있었고, 각 문항별 양분상관계수는 부모용과 교사용 설문 전 문항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위와 같은 부모용과 교사용 설문의 신뢰도와 타당도 및 문항분석 결과를 볼 때 Rutter의 아동행동평가표를 한국의 국민학교아동에게 적용시키는데 별다른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부모용과 교사용 설문간의 낮은 상관을 생각할 때 학교와 가정에서 나타나는 아동들의 행동양식이 다를 수 있어 부모로부터만 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서행동 문제아동의 빈도나 정도(severity)가 과소평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서행동 문제아동 조사시 부모와 교사 양측으로부터의 정보수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지역별 비교; 본 조사에서 농촌아동이 서울아동에 비해 정서행동문제 총점평균 및 정서행동 문제아동의 빈도가 높았다. 반면에 Rutter et al.(1975)은 정서행동문제아동의 빈도는 도시 중심부에 거주하는 아동들이 농촌아동들에 비해 두배 정도 높다고 보고했는데, Kellam et al.(1977)에 의하면 미국의 맨하탄(Manhattan) 같은 경우 도시 중심부에서는 흑인이나 남미계 아동들이 백인아동에 비해 두배 이상 많이 거주하고 있고 도시 중심가에서 빈민촌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지역별 비교시 이와 같은 사회경제 및 인종적 요인들도 고려해 판단해야 된다고 하였다.

Table 10. Mean value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questionnaire scores according to family structure

Locality	Questionnaire	Sex	Family structure				p value (F-test)
			Both parents	Mother only	Father only	Other	
Seoul	Parent	Boys	7.4±7.4	7.6±7.0	13.9±8.0	12.0±0.0	N.S.
		Girls	6.5±6.4	10.0±6.8	8.8±7.5	9.2±10.0	<0.05
		Both sexes	7.0±7.0	8.8±6.9	11.4±8.0	9.6±9.2	<0.05
	Teacher	Boys	3.9±4.9	2.4±3.0	4.9±5.6	9.3±6.5	N.S.
		Girls	2.1±3.4	3.1±4.9	2.6±2.1	3.6±5.7	N.S.
		Both sexes	3.0±4.3	2.8±4.1	3.8±4.4	5.2±6.2	N.S.
Rural	Parent	Boys	8.3±6.5	10.2±7.1	13.0±9.4	25.2±4.2	<0.05
		Girls	7.8±6.0	11.1±6.7	17.0±0.0	11.0±9.9	N.S.
		Both sexes	8.1±6.2	10.6±6.8	13.8±8.3	4.6±6.5	<0.05
	Teacher	Boys	6.8±5.6	9.4±6.4	5.3±4.6	4.7±2.9	N.S.
		Girls	5.0±5.3	9.9±8.0	5.5±2.1	11.0±5.7	<0.01
		Both sexes	5.9±5.5	9.6±7.0	5.3±3.7	6.1±4.3	<0.05

본 조사에서는 생활정도에 따른 차이를 조사하지 않았는데, 본 조사를 시행한 서울아동의 가정이 농촌아동의 가정보다 생활정도가 더 높다고 추정되는데 이러한 차이도 본 조사 결과에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한다. 본 조사 결과는 홍강의 등(1988)이 보고한 서울 시내에서 중상층이 사는 것으로 알려진 아파트 밀집지역 국민학교 아동에 비해 농촌지역 작은 읍 국민학교 아동들의 행동문제 총점평균이 높다는 보고와 일치한다.

성별비교; 본 조사에서 남자가 여자에 비해 정서행동문제 총점평균 및 정서행동문제 아동의 빈도가 높았는데 본 조사와 동일한 설문을 사용한 Rutter(1967)도 남자에서 약 2대 1로 높은 빈도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본 조사결과는 1981년까지 미국에서 보고된 25편의 정서행동 문제아동의 조사에서 성별차가 1대 1 내지 5대 1의 빈도로 남자에서 높다는 보고(Gould et al. 1981)와도 일치한다. Achenbach의 아동행동 목록을 사용한 홍강의 등(1988)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지만 남자가 여자에 비해 행동문제 총점평균이 높다는 보고를 하였다.

한편 Lapouse & Monk(1958), Cederblad(1968), Werry & Quay(1971), Werner & Smith(1979), Wolff(1985) 등은 정서행동 문제아동의 성별차이와 정서행동문제의 유형간에는 중요한 관련성이 있다고 하면서 반사회적 행동장애는 남자에서

많지만 신경증 장애의 경우 오히려 여자에서 많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도 홍강의 등(1988)에 의하면 남자는 외향성 문제, 여자는 내향성 문제가 많다고 하였다.

본 조사에서도 정서행동 문제아동을 반사회적, 신경증적, 혼합형 장애의 세가지로 나누어 보니 남자의 경우는 반사회적 행동장애가 신경증 장애보다 빈도가 많았고, 여자의 경우는 그 반대였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결과로 미루어 볼 때 여자에 비해 정서행동문제의 빈도가 더 높고 정서행동문제의 정도가 심한 것은 사실이나, 정서행동문제의 유형별로 나누어 볼 때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은 남자에서 빈도가 많고 그 정도가 심하며, 정서적인 문제에서는 여자에서 빈도가 많고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된다.

학년별 비교; 학년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총점의 평균이 서울의 교사용 설문의 경우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증가하다가 4학년에서 감소 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농촌의 교사용 설문과 부모용 설문의 남녀 전체의 경우는 불규칙한 변화를 보였지만 역시 5학년에서 감소 후 6학년에서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학년에 따른 차이는 Achenbach의 아동행동목록을 사용한 홍강의 등(1988)의 국내 보고에서도 행동문제 총점평균이 4학년까지 증가하다가 5학년에서 감소 후 6학년에서 다시 증가한다는 것과 대체로 일치

한다. 일반적으로 행동문제들은 저학년에서 많이 보이다가 고학년이 되면서 점차로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고(홍강의와 홍경자 1985), Lapouse & Monk(1985)도 이러한 경향을 보고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서행동문제 총점평균이 4학년이나 5학년에서 감소 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특수사정 즉 고학년이 될수록 행동제약이 많아지며 학업성취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며 특히 6학년 때는 국민학교 졸업과 치열한 입시경쟁이 시작되는 중학교 입학에 대한 불안과 긴장 고조로 인해 내적갈등이 심화되어 정서행동문제 총점평균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생순위 및 형제수에 따른 비교; 출생순위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총점평균은 서울의 교사용 설문에서 남자와 남녀 전체에서 첫째에 비해 둘째에서 감소 후 그후 출생순위가 늦어짐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외동의 경우 홍강의와 홍경자(1985)도 남자에서는 넷째이상 늦게 난 아동들에게, 여자에서는 다섯번째 이후의 아동이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인다고 보고한 바 있다. 출생순위와 정서행동문제간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첫째가 학업적으로 우수하고, 직업적으로 성공하는 경향이 있으나(Rutter & Madge 1976), 행동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utter et al. 1970). 본 조사에서 외동의 경우 정서행동문제 총점평균이 높았는데, 이는 부모의 특별대우 및 과잉보호로 인해 정신과적 문제를 많이 갖는다는 Belmont et al.(1976)과 홍강의 홍경자(1985)의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형제수에 따른 비교에서, 대체로 외동의 경우가 정서행동문제 점수가 가장 높은 외에는 일관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는데 Rutter & Madge(1976) Rutter & Giller(1983) 등에 따르면 형제수가 네명 이상 일 때는 정서행동문제 빈도가 두배 이상 증대된다고 하였다. Jones et al.(1980)은 형제구성에 따라 서로 차이가 난다고 하면서 남자형제만 있을 때 반사회적 행동문제의 빈도가 증대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여자만 있는 경우 정신과적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낮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경제 수준이 낮은 경우 대개 형제수가 많고, 또한 형제수가 많으면 형제간 갈등이 심하고 부모의 적절한 양육을 받기 힘들어 행동문제가 많으리라고 생

각되나 본 조사결과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뚜렷이 알 수 없었는데, 향후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리라 생각했다.

여하튼 출생순위나 형제수가 정서행동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독립적으로 판단하기는 힘들다고 생각되며 가정의 사회경제상태, 부모자식관계, 부부관계, 형제관계 등 다른 요인들과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생각해 판단해야 된다고 본다.

부모 교육정도에 따른 차이; 본 조사에서 정서행동문제 총점평균은 국졸 이하의 저학력군 보다 대중퇴 내지 대졸 이상의 고학력군에서 낮았는데, 고학력 일수록 대체적으로 사회경제상태가 좋고, 자녀양육에 좀 더 일관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부모학력에 따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가 차이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며, 홍강의 등(1988)도 본 조사와 일치되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아버지 직업에 따른 차이; 무직이나 노동의 경우 정서행동문제 총점평균이 높았는데, 이는 부모직업이 부모학력이나 사회경제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생각할 때 무직이나 노동의 경우 학력이나 사회경제 상태가 좋지 않으리라 판단되며, 본 조사중 부모학력에 따른 차이에서 저학력군에서 높은 정서행동문제 총점평균을 보였는 결과와 부합된다고 볼 수 있겠다.

본 조사결과 중 농촌 부모용 설문 여자의 경우에서 무직에서는 점수가 높았으나 사무직이나 전문직이 노동에 비해 오히려 점수가 높은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최근 한국 농촌의 사회경제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고 자영농사인 경우가 많아져 사무직이나 전문직에 비해 사회경제 상태가 뒤떨어지지 않는 결과로 판단되며, 따라서 아버지 직업에 따른 차이를 볼 때 가정의 사회경제 상태도 함께 고려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부모결손에 따른 차이; 본 조사에서 아버지나 어머니의 결손이 있는 경우가 부모가 생존한 경우에 비해 정서행동문제 총점평균이 높았는데, 지금까지 연구 결과들인 이혼이나 사망으로 인해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없을때 아동의 학업 수행능력이 떨어지고 정서행동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보고들(Hertzog & Sudia 1973; Ferri 1976; Lambert & Streather 1980)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Weinraub & Wolf(1983)는 한쪽의 부모만 있을 때 부모자신이 사회적으로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여러가지 스트레스를 겪을 가능성도 많으므로 아동의 양육시 여러가지 문제점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Kellam et al.(1977)은 정서행동문제의 빈도에 부모결손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어머니만 있는 가정의 아동이 행동문제 아동이 될 위험도가 가장 높으며 부모 모두 생존한 경우가 가장 낮다고 하였다.

결 론

Rutter의 부모용과 교사용 아동행동 평가표를 사용하여 서울과 농촌 국민학생에서 사회환경적 변인이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사회환경적 변인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총점평균은, 지역별로는 농촌이 서울보다 정서행동문제 총점평균이 높았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높았다. 학년별로는 4학년이나 5학년에서 감소 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부모교육 정도별로는 저학력군이 고학력군에 비해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총점평균이 높았다. 아버지 직업별로는 무직인 경우가 직업을 가진 경우에 비해 높았다. 부모 중 어느 한쪽에 결손이 있는 경우가 부모생존한 경우에 비해 정서행동문제 총점평균이 높았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국민학교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는 여러 사회환경적 변인에 영향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References

- 홍강의 · 송해양 · 김중술 · 홍경자 · 박성수(1988) : 아동행동목록(CBCL)에 의한 국민학생의 행동문제조사, 신경정신의학 27(2) : 346-360
- 홍강의 · 홍경자(1983) : 부모설문에 의한 아동의 행동문제분석 : 예비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22(2) : 366-374
- 홍강의 · 홍경자(1985) : 국민학교 아동의 행동문제연구 (I) : 부모설문에 의한 역학적 조사. 정신의학보 9 : 48-63
- 홍강의 · 홍경자(1986) : 국민학교 아동의 행동문제연

구 (II). 정신의학보 11 : 26-33

- Achenbach TM(1979) : The child behavior profile : An empirically based system for assessing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and competencies. Int J Ment Health 7 : 24-42
- Achenbach TM, Edelbrock CS(1981) : Behavioral problems and competencies reported by parents of normal and disturbed children aged four through sixteen. Mongr Soc Res Child Dev 46(1, Serial No. 188)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1987) :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3rd edition-revis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pp 50-53
- Belmont L., Sein SA, Wittes JL(1976) : Birth order, Family size and school failure. Dev Med Child Neurol 18 : 421-430
- Boyle MH, Jones SC(1985) : Selecting measures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of childhood for use in general populations. J Child Psychol Psychiat 26 : 137-159
- Cederblad M(1968) : A child psychiatric study on Sudanese Arab children. Acta Psychiatr Scand [Suppl] 44 : 11-230
- Conners CK(1969) : A teacher rating scale for use in drug studies with children. Am J Psychiatry 126 : 884-888
- Conners CK(1970) : Symptom patterns in hyperkinetic, neurotic and normal children. Child Dev 41 : 667-682
- Ferry E(1976) : Growing up in a one-parent family. Slough, National Foundation for Education Research.
- Fishbein H(1981) : Siblings set configuration and family dysfunction. Family Process. 20 : 311-318
- Glidewell JC, Swallow CS(1968) : The prevalence of mal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ould MS, Wunsch-Hitzig R, Doherenwend R(1981) : Estimating the prevalence of childhood psychopathology. J Am Acad Child Psychiatry 21 : 462-476

- Herzog E, Sudia CE(1973) : Children in fatherless families, in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edited by Caldwell BM, Ricciuti H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 pp 141-232
- Hodges K, Mcknew D, Cytryn L, Stern L, Kline J (1982) : The child assessment schedule (CAS) diagnostic interview : A report on reality. *J Am Acad Child Psychiatry* 21 : 468-473
- Jones MR, Offord DR, Abrams N(1980) : Brothers, sisters and antisocial behavior. *Br J Psychiatry* 136 : 139-145
- Kellam S, Enslinger ME, Tuner RJ(1977) : Family structure and the mental health of children. *Arch Gen Psychiatry* 34 : 1012-1022
- Lambert L, Streather J(1980) : Child in changing families : A study of adoption and illegitimacy. London, Macmillan Press.
- Langer TS, Gersten JC, McCarthy ED, Eisenberg JG, Greene EL, Herson JH, Jameson JD(1976) : A screening inventory for assessing psychiatric impairment in children 6 to 18. *J Consult Clin Psychol* 44 : 286-296
- Lapouse R, Monk MA(1958) : An epidemiological study of behavior characteristics in children. *Am J Public Health* 48 : 1134-1144
- Long A(1941) : Parents' reports of undesirable behaviour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12 : 43-62
- Miller LC, Louisville(1967) : Behavior Checklist for males, 6-12 years of age. *Psychol Rep* 21 : 885-896
- Mitchel S, Shepherd M(1966) : A comparative study of children's behavior at home and school. *Br J Psychol* 36 : 248-254
- Quay HC(1979) : Classification. in Psychopathological disorders of childhood
- Rutter M(1967) : A children's behaviour questionnaire for completion by teachers : Preliminary findings. *Child Psychol Psychiat* 8 : 1-10
- Rutter M, Cox A, Tupling C, Berger M, Yule W(1975) : Attainment and adjustment in two geographical areas : I. *Br J Psychiatry* 126 : 493-509
- Rutter M, Giller H(1983) : Juvenile delinquency : trend and perspectives. New York, Guilford Press.
- Rutter M, Graham P(1966) : Psychiatric disorder in 10-11 year old children.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of Medicine* 59 : 382-387
- Rutter M, Madge N(1976) : Cycles of disadvantage : a review of research. Heinemann, London.
- Rutter M, Tizard J, Whitmore K(1970) : Education, Health and Behavior. Longmans, London, pp 412-418
- Weinraub M, Wolf BM(1983) : Effects of stress and social supports on mother-child interactions in single-and two-parent families. *Child Dev* 54 : 1297-1311
- Werner EE, Smith RS(1979) : An epidemiologic perspective on som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childhood mental health problems and learning disabilities. A report from the Kauai longitudinal study. *J Am Acad Child Psychiatry* 18 : 292-306
- Werry JS, Quay HC(1971) : The prevalence of behavioural symptoms in younger elementary school children. *Am J Orthopsychiatry* 41 : 136-143
- Wong CK(1988) : The Rutter parent scale A2 and teacher scale B2 in Chinese II. clinical validity among Chinese children. *Acta Psychiat Scand* 78 : 11-17

**BIO-PSYCHOSOCIAL STUDY OF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
IN KOREAN ELEMENTARY SCHOOL CHILDREN (I)**

— An Epidemiological Study of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 in Korean
Elementary School Children by Rutter's Questionnaire —

Kyung-June Jang, M.D., Chung-Kyoon Lee, M.D., Kang-E Hong, M.D.
Department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Seoul National Mental Hospital

The survey of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provide baseline data for understanding, treating and preventing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 in children. Since children can show different behaviors at home and at school, parents' information alone can lead to underestimate severity and prevalence rate of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 in children.

Thus, the author investigated the different the pattern of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by various socio-environmental factors in urban(Seoul) and rural area, by employing both parents' and teachers' questionnair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Analysis of Rutter's questionnaire, in which high scores mean more serious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 than low scores.

The mean total problems scores for rural elementary school children were higher than those of Seoul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boys showed higher scores than girls.

In relation to grade, mean total problems scores diminished as grade increased up to 4th or 5th, and then relatively high score for the 6th grade.

Parent's education had significant effect on the total problem scores, that children of less educated parents showed higher score than children of more educated parents.

Likewise the highest score was observed in children of unemployed parents.

These results demonstrated that emotional behavioral children are related to various socio-environment factors.